

제4장 토론문

1. 표상 분석의 자기모순을 바라볼 때 실증은 어디에 놓이는가

지정학을 '무엇이 사실인가'에서 '무엇이 말해지는가'의 문제로 전환한 제4장의 논의는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표상 분석이 특정 표상을 기각하기 위해 실증적 검증에 의존한다면, 인식론적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이 장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은 '성공한 표상'이며, 실패한 정당화는 표본에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토론문은 지배적인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권력에 의해 배제된 담론에 주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 소개된 사례들과 같은 대중문화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많은 지정학 코드 중 선택된 최종 결과물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부재나 침묵 그 자체 역시 권력의 작용을 증명하는 단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된 표상과 소거된 담론만을 분석하는 것 역시 위험성이 존재한다. 권력에 의해 소거된 담론을 분석하다 보면 근거가 결여된 연구자의 자의적 추정이나 과잉 해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분석 대상은 침묵 그 자체보다는 주류 담론에 밀려났으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담론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 연설문이나 주류 미디어의 보도 이면에 존재하는 기밀 해제된 초기 정책 입안 문서, 정부 조직 내부의 소수의견서, 또는 지배적인 지정학 코드가 확립되기 전에 경합했던 대안 매체의 기록 등이 있을 수 있다. 표상과 정책 사이를 매개하는 조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은 이러한 주변부의 담론을 발굴하고 분석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오리엔탈리즘의 비서구적 변용: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

발제자가 제국 일본이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해 그 시선을 이웃에게 재투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그 유산이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의 동남아시아 표상 방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 역시 예리하다. 본 토론자는 오리엔탈리즘이 비서구를 후진적으로 묘사하며 서구의 지배를 개화로 정당화했듯, 현재 한국 대중문화가 동남아시아를 표상하는 방식에서 K-컬처 문명화 임무(civilizing mission)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미디어에서 동남아시아인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환호하는 모습을 전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문화적 자긍심의 표출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구가 자신

을 근대적으로 규정하고 비서구를 타자화 했듯이, 한국 역시 동남아시아를 선진 문화의 수용자로 위치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아시아의 문화적 중심이자 문명국으로서 위치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우월주의는 가치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지정학 코드가 물질적 이익을 위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포함하듯이, 한국 대중문화의 시혜적인 시선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ODA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저임금 이주 노동력 활용 등의 물질적 이익을 상호 발전이나 문화적 교류로 포장한다. 이것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나 일본의 제국주의가 스스로를 정당화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 표상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이면에 어떤 시선이 숨어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순응하는 코드'의 표상 정치 - 한국의 베트남 파병

발제자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 사례가 대외적으로는 지도국의 가치 언어를, 대내적으로는 물질적 서사를 병치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또한, "순응국의 지정학적 코드는 지도국 코드의 번역인가, 아니면 국내 정치의 요구에 따라 재구성된 독자적 코드인가"라는 질문 역시 중요한 질문이다. 본 토론문은 이 질문에 대해 둘 중 하나가 답이기 보다는, 국제 정치 구조 내에서 보편적 서사를 생산하고 관철할 수 있는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중 전략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플린트는 지정학 코드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의 국민과 국제공동체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13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중의 분할 자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청중을 설득하는 서사의 단일성 여부이다. 미국과 같은 세계 지도국은 자국의 지정학적 행위를 '자유'나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로 포장하여 국내외 청중 모두에게 동일한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 지도국은 자국의 물질적 이익이 곧 전세계의 이익이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헤게모니적 담론을 생성해낼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과 같은 순응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이러한 단일 서사를 구사할 수 없다. 순응국은 자국의 행동이 세계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보편적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권력이 없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지도국의 가치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동맹으로서의 위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담론만으로는 실제로 희생을 치러야 하는 자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결국 내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도국의 코드와는 별개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독자적 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순응국의 지정학 코드는 번역이나 독자적 재구성이나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 가치를 독점한 지도국의 서사를 외부에 "번역"해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서사만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내부의 청중을 물질적 이득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4. 가상전쟁에서 플랫폼 전쟁으로

표상 권력이 텍스트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정학 코드 연구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는 일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본 토론문은 알고리즘은 열람이 불가능하더라도, 오히려 국가가 플랫폼 환경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다층적이고 풍부한 지정학적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국내외 청중을 설득하는 정당화의 과정이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나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정적인 매체를 통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SNS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다. 발제자가 예시로 든 우크라이나 역시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SNS 플랫폼을 많이 이용한다. 이러한 이용 양상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아카이브를 분석함에 있어 과거의 텍스트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해석 권력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도달 제한 정책 등에 있다. 따라서 현대 지정학 연구는 국가가 던지는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지정학적 코드를 어떻게 알고리즘 친화적인 형태로 포장하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지정학 코드 연구의 아카이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계정과 그들이 유통하는 콘텐츠로 이동한 것이다.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국가가 정적인 텍스트의 생산자를 넘어 플랫폼에 적응한 디지털 행위자로 변화했음에 주목하고, 이들의 플랫폼 활용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지정학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